



리일천 사진작가가 광주시립사진전시관에서 열고 있는 '시간의 기억 전 세번째 색션 '광주 미술인 100인전'은 광주 회단의 역사이기도 하다.



'몸짓'

“광주미술 만들어간 134명 작가 사진에 담았죠”

광주시립사진전시관 21일까지 리일천 '시간의 기억' 전
2006년부터 지역 미술인 촬영...지역자산으로 기부 예정
“광주 회단 역사 기록...작가 내면까지 담아내려 했죠”



사진작가 리일천

글쓰기에 몰두하는 고(故) 이돈홍 선생, 광주리에 담긴 석류를 그리다 잠시 망중환을 즐기는 강연균 화백, 싱그러움 미소의 설박 작가. 사진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 모습 자체로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리일천 사진작가가 광주시립사진전시관 초대전으로 '시간의 기억' (21일까지)을 열고 있다. 3개 색션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서 눈에 띄는 건 '광주미술인 100인전'이다. 대형 전시장 양 쪽 벽면을 가득 채운 134명의 작가들은 '광주 회단(會團) 역사'의 한 단면이다. 그의 앵글에 포착된 작가들의 모습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오롯이' 작품 활동에 매진해온 그들의 이력이 보이는 듯도 하다. 화가가 꿈이었던 이 작가는 직장생활을 하다 뒤늦게 사진을 시작하며 예술의 세계로 들어섰다. 사진을 찍은 게 올해로 36년째, 전업작가로는 25년의 시간을 넘어가고 있다. 이 작가는 2006년부터 지역 미술인들을 앵글에 담아왔다. '10년 작업'으로 시작한 일은 어느덧 15년을 넘어섰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어갈 '평생의 작업'이 됐다. 그는 '스타 작가'가 아닌, 모든 이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싶었다. 새롭게 등장하는 후배들의 멋진 모습을 기록하는 작업 역시 자신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다. 40세 이상 작가를 촬영한다는 원칙을 변경해 몇년전부터 이세현, 하루 K, 설박 등 젊은 작가들을 찍고 있는 이유다. "작가들과 교류하며 이들을 전문적으로 기록하는 아카이브 작업을 누군가 하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세상은 알려지지 않은 작가에 주목하지만, 광주 회단이 이처럼 풍성해질 수 있었던 건 수많은 작가들이 존재했기 때문

이죠.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진실된 마음으로 승려처럼 작업을 해오는 그들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이 작가는 고교 동창인 이기원 조각가를 비롯해 한 화원·송필용 작가들과 교류하며 마음을 털어놓았고 가까운 이들과 함께 활동했다. 이후 공공 기관 지원을 받지 않는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했고 이 프로젝트를 끝낼 때까지 내 신념을 지키겠다고 늘 마음을 다 잡았다. 초창기 작업은 힘들었다. 가장 큰 문제는 금전적인 부분이었다고 작가들의 반응도 제각각이었다. 묘하게 '얼'이 되는 것같이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다. 4년간은 묵묵히 촬영에 임했다. 사람들은 "리일천은 늘 현장에 있다"고 생각했고, 신뢰와 믿음을 주기 시작했다. 인연이 이어지면서 주변의 소개로 새로운 일도 하게 되고, 작업 폭도 넓어졌다. 그가 14년간 작가 등 문화 예술과 관련해 찍은 사진은 60만컷에 달한다. 10년이 지난 후, 늘 힘이 돼 주었던 아내와 대화 중 "역사에서 10년은 시간도 아니다. 좀 더 해봐야겠다. 작가든 나든 한 명이 죽을 때까지 작업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웃기도 했다. 그는 작가의 프로필 사진이나 작업모습만을 앵글에 담지 않는다. 해당 작가의 행사에 가장 먼저 도착해 가장 늦게 철수한다. 늘 '5분 대기'로 살아야 했고 그것은 '기록작업'의 운명이었다. "지속 가능한 작업"을 위해 그는 변화를 택했다. 최근에는 휴대폰 등으로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아 굳이 전시 오프닝 등 '모든 것'을 촬영하지는 않기로 했다. 대신 행사 전후 작가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작업실에서의 모습을 좀 더 심도있게 담으려 한다. 함께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찍는, 성숙하고 진중한 방향으로의 전환이다. 전시장에서 인상적인 건 작가들의 모습을 담은 134개의 앨범이다. 여기에 실린 사진만 4000장이 다. 이번에 자신의 앨범을 처음 본 작가들은 감회에 젖고 고마움을 표했다. "사진에는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겉모습뿐 아니라

내면의 정신을 담고 있어야 하죠. 대상을 찍을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누가 봐도 그 사람이다'라고 느끼게 하는 겁니다. 아카이브 작업이라는 게 그냥 있는 그대로 찍는 게 아니에요. 작가들은 자기 언어가 없어요. 그게 표정으로, 몸세로 나타나는 거죠. 이번에 앨범을 본 작가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이 '이런 모습을 언제 찍었어?'라는 겁니다. 솔하게 대화를 나누며, 꾸준히 그 사람을 관찰하며 담은 사진들이죠." 전시에서는 도구와 빛을 이용해 시간이 가지고 있는 추상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만나는 '존재와 시간', 공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공간의 전위' 색션도 만날 수 있다. 이 작가는 지금까지 32회 개인전을 열었고 내면의 이야기들을 꾸준히 작품으로 표현해 내고 있다. "저에게 가장 지루같은 일은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포기하는 거였어요. 제가 말만 앞서는 사람이 돼 버리면 새로운 후배의 등장을 막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 더 열심히 하려했습니다. 또 제가 기록한 작가들에게 누가 되면 안된다는 것도 늘 부담이었죠. 그들이 제가 찍은 사진으로 기억될 수 있으니까요. 제 작업이 광주 미술사의 작은 기록이자, 아카이브로 남는다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 그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똑같은 자료를 작업실 등 세 곳에 보관하고 있다. 그는 어느 시점이 되면 작가들을 촬영한 모든 사진을 광주의 아카이브로 조건 없이 사회에 내놓을 예정이다. 다음 작업은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광주의 당산나무를 찍어보려 한다. 또 원로작가들의 기록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하나, 수많은 것 중 '한번도 보지 못한 그 작가의 모습'을 담은 사진의 최종 선별작업도 남아 있는 숙제다. 리일천은 끊임없이 광주의 작가를 기록한다. 그의 앵글을 통해 작가들은 생명을 얻고, 광주 미술계는 역사를 갖는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크로키로 '몸짓' 순간 포착 이승희 개인전, 16일까지 LH 휴광갤러리

'다채로운 몸짓을 만나다.' 인물의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포착해 표현해 내는 크로키 작업은 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준다. 모델의 다양한 포즈를 재빠르게, 몇번의 터치로 잡아내는 작업은 얼핏 단순한 듯 하지만 고도의 테크닉을 필요로 한다. 신체의 아름다움과 움직임의 제대를 포착해낸 작품은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진실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승희 작가가 크로키 작업만으로 개인전을 연다. 16일까지 LH한국도지주택공사 휴광갤러리. '몸짓'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이 작가는 현장에서 직접 모델과 함께 작업한 크로키 작품을 선보인다. 이 작가는 15년간 크로키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 크로키 동호회 '토만사' 회원으로 활동하며 크로키 작업의 매력에 빠져든 그는 3분이나 5분 동안 짧은 포즈를 취하는 모델의 모습에서 여러 감정을 뽑아내 작품으로 형상화시켰다. 전시에서는 흑백 작품 이외에도 다채로운 색감을 입힌 크로키 작품도 함께 선보이고 있다. 한국미협회원, 사생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작가는 한·일 교류전(샌디아·오나고 등), 프랑스 파리 스페셜 K-art전, 안산 국제드로잉 아트페어 등에 참여했으며 한국현대여성미술대전, 전남도전, 남농미술대전 등에서 수상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제11회 조영관 문학창작기금 김수 작가 '어둠의 공간' 선정

함평 출신 조영관 시인(1957~2007)의 뜻과 삶을 기리고자 제정된 조영관 문학창작기금 제11회 수혜자로 김수 작가가 선정됐다. 수혜작은 단편소설 '어둠의 공간' 외 1편이며 상금은 500만원. 김수 작가는 2019년 '한국소설' 신인상을 수상했다. 김 작가는 "글을 쓰는 행위는 아픔에 대한 공감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글을 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사위원들은 이번 수상작에 대해 "소재에 대한 심도 깊은 취재와 속도감 있는 문체를 통해 읽는 이로 하여금 새겨 돼지들이 도살당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있는 것 같은 몰입감을 가지게 한다"고 평했다. 한편 이 창작기금은 노동운동에 투신했다가 2007년 세상을 떠난 시인 조영관의 뜻과 삶을 기리고자 제정됐다. 수여식은 오는 3월 6일 오후 2시 마석 모란공원 민주묘지 조영관 묘비 앞에서 열린다. 문의 010-8206-243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어머니같은' 빈집을 바라보는 애정어린 시선 신안 출신 고성혁 시인 '빈집' 출간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농촌에는 빈집이 늘 어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빈집은 유년의 추억이 깃들어 있거나, 혈육의 정을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다. 신안 출신 고성혁 시인에게 빈집은 '마치 어머니같은' 존재다. "사야가는 지붕"이며 "흰머리 같고 듬성듬성 드러난 대들보와 구부러진 서까래는 주름살"을 닮았다. 시인의 세 번째 시집 '빈집' (문학들)은 삶에 대한 회고와 관조가 번뜩인다. '삶'으로 상징되는 '빈집'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나의 끈처럼 잇고 있다. 결코

단절될 수 없는, 아니 단절되어서는 안 되는 역사를 품는다. 이번 시집을 펴내게 된 이유를 시인은 이렇게 말한다. "빈집이 늘어난다. 나날이 형체를 잃어가는 마당에 나뭇잎만 쌓이는 목은 집. 주름살 가득한 노인처럼 무망하게 선 채 수심이 깊다." 표제작 '빈집'은 두 편이 실려 있는데, 하나는 '회귀'이며 또 하나는 '소멸점 너머'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특히 "해진 신발을 읊다가 그동안의 이별을", "고요가 녹는 주발처럼 푸르다", "숨이 멎듯 풍경이 운다" 등과 같은 표현은 생생하면서도 깊은 여운을 준다. 오랜 사유를 통해 시상을 가다듬고 시어 하나하나를 맞춤형에 선택한 흔적이 예사롭지 않다. 이은봉 시인은 추천사에서 "그는 시를 자기 수행의 한 형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라며 "나날의 고통을 언제나 깨끗하게 드높은 정신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다"고 평한다. 한편 고 시인은 1997년 계간 '시와산문'으로 등단했으며 시집 '낮은 시네마 필름처럼', '귀향'과 산문집 '그저 지는 듯 죽게 해 주십사'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